

## 원한 적도 없는 연어를 일단은 삼켰으니

가네시로 가즈키의 <GO>를 읽고

국적을 고백하는 스기하라에게 사쿠라이는 분노한다.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냐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 그럼 만약을 가정하여 가토의 생일파티로 시간을 돌려 보자. 원래의 이야기처럼 스기하라는 홀로 테이블에 앉아 있다. 클럽의 문이 열리고 사쿠라이가 들어온다. 둘의 눈이 마주친다. 사쿠라이가 다가와 스기하라의 우롱차를 뺏어 마신다. 둘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된다.

여기서 잠깐. 스기하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기로 한다. 이는 조선 핏줄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는 주변에 스스로의 정체성을 공표할 의무가 있다. “우선 알아둬야 할 게 있어. 나는 재일 한국인이야. 조선 국적이었다가 중학교 때 한국 국적으로 바꿨어.” 자, 이제 그는 민족의 의무를 다했다. ‘민족의 반역자’ 내지는 ‘매국노’라며 민족학교 선생들에게 구타당하지 않을 조건을 갖추었다. 그럼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볼까?

### 1. 차별이라는 이름의 언어

“가끔 내 피부가 녹색이나 뭐 그런 색이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가울 높은 다가오고 다가오지 않을 높은 다가오지 않을 테니까 알기 쉽잖아요.” (214p)

구별되지 않는 외형. 유창한 언어. 강한 육체의 젊은 남성. 국적을 제외하고는 모든 메이저리티의 조건을 지니고 있다. ‘이’라는 성씨 대신 ‘스기하라’라는 통명을 사용하여 살아간다면 누구도 그를 소수자로 여기지 않는다. 그럴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이다. 그는 싸움을 걸어오는 동급생의 얼굴을 재떨이로 가격해 버리는, 이름하야 25전 무패의 사나이니까.

일상생활에는 어떤 지장도 없다. 더 나아가 숨기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숨겨질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의 구별과 제도 아래서는 말이 달라진다. J리그의 프로 축구 선수도, 어엿한 변호사도 될 수 없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다가, 국적이라는 무형의 무언가를 인지하고 나니 달라지는 주변인들의 태도를 경험하며 자란 스기하라는 계속해서 자신의 성장 배경에 대하여 서술한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들이 국적을 바꾸게 된 계기, 민족 학교, 친구들과, 선생과 경찰들. 소속되길 거부하고 노골적인 적대심을 드러내지만 언급의 끝에는 늘 국적에 대한 이야기가 자리한다. ‘상관없다’고 미루어 두는 동시에 가장 의식하는 태도를 보인다.

결국 그는 첫날밤을 앞두고 돌연 여자 친구 사쿠라이에게 자신의 국적이 한국임을 고백한다. 말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일인데, 스스로가 마이너리티임을 영 이상한 타이밍에 밝혀 버린다. 스기하라에게 이는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다. ‘거짓말을 하기 싫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다.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기에, 외형으로는 그가 마이너리티임이 드러나지 않기에 말해야만 했다. 숨기려고 한 적도 없는데 얼떨결에 숨기는 꼴이 되어 버렸다. 스기하라는 자존심이 강하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밝혀야만 한다. 이토록 요령 없이 솔직한 청년이다.

사쿠라이는 맹수처럼 쏘아보는 스기하라의 눈과 단번에 사랑에 빠졌다. 그의 이름도, 목소리도 모르던 때의 일이다. 그런 스기하라는 맹수로 만든 것은, ‘차별이라는 언어를 먹이로 제공해 그를 난폭한 곰으로 만들어 버린’ 것은, 다름 아닌 재일 한국인이라는 그의 정체성이다. 그것을 부인할 이유는 없다. 마이너리티임을 고백하는 것이 곧 그 무리에 정체성을 귀속시키겠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다고 마이너리티임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이 다수에 편입되길 바란다는 ‘투항’의 뜻은 더더욱 아니다. 그는 독특한 입지를 갖고 살아간다. 일본이라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재일교포로서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민족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도 독특하다. 말 그대로 ‘고독한 사자’의 모양새다. 누구에게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조선인이라고 모욕하는 경찰들을 도리어 공격하고, 매국노라고 비난하는 선생들에게 고개를 푹바로 쳐든다.

그렇게 맹수는 태어났다.

## 2. 우리들은 나라란 것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는 <카프카: 소수적인 문학이란 무엇인가?>(1986)에서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연결되는 현상을 소수적인 문학의 특징 중 하나로 꼽았다. 소수적인 문학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는 곧 정치적인 것으로 직결된다. 각 발화자의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말과 움직임은 일종의 '공동 행동'으로 여겨진다. 스기하라의 모든 일상 속 움직임은 주변인들에게 정치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진다. 민족학교 농구부의 감독은 '너희들의 패배는 조선인 전체의 패배'라며, 알아보기 않기 위해 남들 앞에서 울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일본 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고 했더니 선생들에게 이지메를 당한다. 매국노, 매국노, 매국노! 선생은 경멸하는 표정으로 그를 구타한다. 모두가 인정하는 모범생인 정일은 그런 스기하라를 두둔하기 위해 소리친다. "우리들은 나라란 것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에게 처음으로 흠뻑 두들겨 맞는다.

정일은 유일하게 스기하라를 두둔해 준 친구이다. 앞으로도 계속 빗나가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독특한 삶의 방식을 믿어 준다. 그런 정일의 죽음 이후 동급생들은 스기하라에게 복수에 참여할 것을 제의한다. 그러나 이제 스기하라는 조선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 혼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가 납득하지 못하는 행동을 저지르지 않는다. 느껴지는 친구의 빈자리에 몇 년 만의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을 뿐이다.

소설 초반 아버지는 조선에서 한국으로 국적을 바꾼 후에 말한다. "국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는 거야. 네 녀석은 어느 나라 국적을 사고 싶으냐?" 국적이란, 혼이란 무엇인가. 스기하라는 끊임없이 자문한다. 그러고는 '일본 학교에 다니더니 일본인에게 혼을 팔아먹었느냐'고 분노하는 동창의 앞에서 반론한다. 혼 따위는 내 알 바가 아니라고. 그런 건 팔아버릴 수도 있다고. 이는 국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라던 아버지의 말을 연상시킨다. 이것이 스기하라가 나름대로 결론내린 국적과 혼의 정의다.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 한평생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스기하라는 단호히 선언한다. "이제 더 이상 커다란 것에 귀속되어 있다는 감각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아. 이젠 사양하겠어." 정체성과 소속감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정체성을 선부르게 규정짓고 귀속되길 강요하는 사회의 분위기야말로, 스기하라와 같은 중간의 인간에게는 탐탁찮다.

국적도 혼도 사라진 이곳에는 개인만이 남아 있다. '한 인간'으로서의 스기하라는 솔직한 사람이다. '눈앞에 누워 있는 여자를 미치도록 사랑하기에, 서로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말해야만 하기에' 사쿠라이에게 자신이 재일교포임을 고백한다. 나라도, 국적도, 혼도 가지지 않았지만 울고 싶을 때 울고 고백하고 싶을 때 고백한다. 납득할 수 없는 복수는 하지 않는다. 과거 선생의 요구대로 우는 법을 잊고 살았던 스기하라는 끝내 눈물을 터트린다. 끝까지 자신을 믿어 주었던 사람이 죽었다. 비로소 사회의 억압 아래 가려져 있던 진정한 속내가 드러난다. 친구의 죽음 앞에서 오열하는 이 청년이 바로, 정일의 친구 스기하라인 것이다.

## 3. 브람스의 음악은 아름다우니까

많은 사람들은 가끔, 이 세상에서 현재 살아가는 중인 '한 인간'에 대해 망각한다. 이미 태어나 버린. 뭐가 뭔지 정체를 알 수 없는 환경에서 부글부글 끓는 속을 끌어안고 자라난. 땅에 두 발을 딛고 서서 주위를 두리번대고 있는 스기하라와 같은 인간 말이다. 자각하기 전부터 삼켜진 언어는 여전히 뱃속에서 요동치고 있다. 불합리한 것을 순응하고 소화시킬 수는 없다. 그렇다고 전부 토해내기엔 이미 늦어 버렸다.

세상은 복잡하고 그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협소한 선택지 사이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강요받았다. 서둘러 입장을 표명하기를. 어서 한쪽 편을 택하기를. 나의 편에 서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상대의 편에 서서 나의 비난을 받아들이기를. 혹 아니면 백. 적 아니면 아군. 꼭 그의 앞에 주어진 선택지는 그 두 가지 뿐이라는 것처럼 재촉 당했다. 그러나 그는 태어날 때부터 중간 지점에 있었다. 아니, 중간 지점도 아닌 전혀 다른 바깥일지도 모른다. 그곳에서 스기하라라는 선택하지 않기를 선택했다. 부인하지 않지만 소속되지도 않는다. 거짓말은 하지 않지만 엇매이지도 않는다. 설령 모두의 적이 될지언정 어느 하나의 편도 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소설 속 스기하라에게 가해지는 주위의 압박은 요즘의 모습과도 맞닿아 있다. 보다 복잡하고 다양해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분매초 의견을 표명할 것을 요구받는다. 어떤 조건 아래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언가를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때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내야 한다. 하지만 스스로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틀에 갇혀 버리는 태도는 얼마나 무의미한가. 오히려 우리를 둘러싼 '틀'이야말로 가장 변하기 쉬운 것이다. 사회적인 상황, 시대에 따라 격변한다. 이 지구 위의 역사는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없을 만큼 쌓여 왔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입장 표명을 명목으로 삶의 너무 많은 부분을 휘둘리고 만다. 걸기도 전에 안팎에서 차별을 먼저 배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커다란 것'들 사이에서, 그들은 한 인격체가 아닌 이념 갈등의 도구나 장기 말 정도의 취급을 받는다.

스기하라라는 끌어줄 어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미리 닦아놓은 길도 필요 없다. 그는 지하철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청년이기 때문이다. 앞에 지폐 따위의 유혹이 떨어져 있다는 가정 없이도, 매 순간 있는 힘을 다해 달려 나갈 수 있을 만큼 강인하기 때문이다. 수세미 선배는 인연의 시작과 끝에서 스기하라의 등에 대고 외친다. "가." 뒤늦게 돌아본다 한들, 한 발 앞서 사회의 틀에 균열을 만들어낸 선배는 벌써 등을 돌리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중이다. 그의 말처럼 스기하라라는 갈 것이다. 때로는 친구에게 때로는 연인에게, 또 때로는 불량배들을 향해 달려들 것이다. 미련하고 요령도 없이.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의 선택으로 말이다.

우리는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장소로 가자.'는 결론을 내렸다. (...) 그곳이 어딘지, 그곳에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그 어느 쪽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았다. (141p)

작곡가 브람스의 국적을 묻는 스기하라에게 사쿠라이는 대답한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런 거 상관없잖아. 그래서 브람스를 온 세계 사람들이 듣는 것 아닐까. 브람스의 음악은 아름다우니까." 그 직후에 둘은 바다를 보러 가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어느 바다로 가야 좋을지는 당장 정하지 않는다. 브람스의 국적을 알 필요가 없듯이, 그들이 미래에 어느 바다로 향할지 또한 알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조건이나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납작한 구절이 아니다. 스기하라라는 책 읽기를 좋아하고 의리를 중요시하는 맹수로 자라났다. 그리고 사쿠라이는 어쩌다 마주친 그와 사랑에 빠졌다. 성장 배경에는 분명 일본이니 한국이니 하는 것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이미 자라난 스기하라라는 그저 스기하라일 뿐이다. 어린 두 연인은 함께 바다를 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미지의 그곳을 향해 달려간다. 어느 바다인지는 중요치 않아.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도 몰라. 아름다운 바다, 그곳에 네가 있으면 돼. 국적 모를 브람스의 음악과 함께.